

시진핑 집정시기 화교 정책의 변화



한중DB

중국으로 다가서는
열린 세계

시진핑 집정시기 화교 정책의 변화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김동하 교수 (dhkim@bufs.ac.kr)

목 차

1. 화교 개념과 생성 배경
2. 화교 규모
3. 화교 정책의 변화
4. 평가

- 화교는 중국본토 외 국가나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계 사람을 의미하나 법률적으로는 중국 국적을 가진 공민이며, 화인과 화예는 3세대 혹은 5세대 이상이 지난 중국계 화교
 - 중국정부는 귀국화교, 화교가족에 대한 법률·법규를 마련하여 이들의 국내정착을 지원
- 화교는 중국 내부 및 외부 요인으로 탄생,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신화교 탄생
 - 송대·명대에 이민족(몽고·만주) 왕조 등장으로 해외 이주 발생, 19세기에는 미국 노예해방 후 노동력 공백 및 영국 식민지에 필요한 노동력 수요로 전세계 화교 송출
- 전세계 화교 규모는 4천만 명에서 8,700만 명 규모로 추산, 동남아에 70% 거주
 - 최대 화교 인구는 인도네시아(812만 명)에, 말레이시아는 자국 인구 중 22.8%가 화교
- 1861년 총리아문 신설로 청나라 화교정책의 시작
 - 중화회관은 상공회의소, 교민협의회와 같은 해외 민간단체로 청대 화교정책 공백기를 채움
- 1980년대 개혁개방 시기 화교는 대중국 투자 견인을 위한 선구자 역할 수행
 - 이후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여 화교, 귀국화교, 화교가족에게 우대 정책 실시
- 시진핑 집정 1기인 2012년부터 통치 이념 ‘중국몽’ 달성을 위한 중요 자원으로 화교 부상
 -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 실현을 위한 ‘중국몽’을 위해 세계 각국 화교의 역할을 강조
- 시진핑 집정 3기에도 공자학원, 중국화문교육기금회 등 소프트파워 채널을 활용한 여학, 문화, 화교·화인 청소년 교류사업 확대 전망

1. 화교 개념과 생성 배경

1) 화교 정의

■ 화교는 중국 본토 외 국가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계 사람을 의미하나, 법률적으로는 중국 국적을 가진 공민임.

- 화(華)는 중국을, 교(僑)는 타국에서 임시로 거주함을 뜻함. 그러나 중국에서 태어난 1세대 화교들은 이미 고인이 되었고, 그들의 자손은 2세 3세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금은 현지 국적을 가진 화교가 대부분을 차지함. 따라서 이들은 화교와

구분하여 화인(華人)이라고 부름. 화교라는 용어는 1911년 신해혁명 이후에 모든 해외 거주 중국인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됨(김두진 1990, 278).

- 중국 국무원이 1984년 공포한 ‘화교, 귀국화교, 화교학생, 귀국화교학생, 화교가족 등 신분에 대한 해석’ 규정에 따르면 화교는 ‘국외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을 지칭함.¹⁾ 즉 중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인임.
- 귀교(歸僑)는 화교 혹은 화인으로 해외에 거주하였다가 중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사람임. 화교가족을 의미하는 교권(僑眷)의 권(眷)은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함. 즉 화교·귀교의 배우자, 부모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부계, 모계), 손자(부계, 모계) 및 화교·귀교와 장기간에 걸쳐 부양관계에 있는 기타 친족들임.

■ 화인과 화예는 3세대 혹은 5세대 이상이 지난 중국계 화교를 의미

- 화인(華人)은 태어난 곳도 중국이 아니며 현지 언어를 사용하고 현지국적을 취득하여 그곳 시민으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중국계 사람들을 지칭함.
- 화인은 화교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이며,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거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계를 통칭함.
- 화예(華裔)는 중국계 혹은 화교의 자손으로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중국계 후손임.
- 예(裔)는 후손을 의미하는 한자로, 화예는 중국인들의 자손으로 중화민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민족적인 연계가 희박한 부류를 지칭함.
- 일반적으로 선조가 5대 이상 현재 거주국에 살아왔던 집안의 후예이면 이들을 화예로 지칭하고, 이보다 역사가 짧으면 화인으로 구분하고 있음(조정남 1998, 39).

1) 关于华侨、归侨、华侨学生、归侨学生、侨眷等身份解释(试行)的通知(1984.6.23.). 国务院侨务办公室. 동 통지문은 关于界定华侨外籍华人归侨侨眷身份的规定(국무원. 2009.4.24) 공포후 폐지됨.

[표 1] 한국과 중국의 해외거주 자국민에 대한 호칭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재외 동포 (在外同胞)	재외 교포 포함한 넓은 의미 한국계 후손 (한국계 외국인. 4대 이상) 조선족 동포: 중국국적 한국계 후손 고려인: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포	화예 (5대 이상 후손)
재외 교포 (在外僑胞)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후손 (2-3대 수준)	화인 (화교 2-3세)
재외국민 (在外國民)	외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적자. 이중국적 허용되는 국외에서 영주권자 신분 획득 후,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 선거에 투표권 행사 가능(대통령·국회의원선거)	화교 (중국 국적 보유자)

자료: 국내외 공개자료 참고하여 저자 구성(2024.4)

■ 중국정부는 귀교(귀국화교), 교권(화교가족)에 대한 관련 법률·법규를 마련하여 이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중국 헌법 50조에는 ‘중국은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귀교, 교권의 합법적인 권리와 권익을 보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중국 내 화교의 권익 보호를 명시한 최상위 법률로는 1990년에 최초 제정하고 2000년에 수정한 ‘귀교·교권 권익보호법(归侨侨眷权益保护法)’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04년에 제정한 실시세칙인 ‘귀교·교권권익보호법실시방법’이 있음.
- 2016년 국무원 규정은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화교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한 바 있음.
 - 중국 공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장기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연속 2년 동안 거주(定居)하고 2년 이내 누적 체류 기간이 18개월 이상이면 화교임.
 - 중국 공민이 거주국에서 장기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5년 이상(5년 포함) 합법적인 거주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내 누계로 30개월 이상 체류하면 화교로 간주함.
 - 중국 공민이 해외에서 유학(정부 후원 및 자비)하거나 해외에서 공무를 위해 일하는 경우(파견인력 포함)에는 화교로 간주하지 않음(国务院侨务办公室 2016).

2) 화교 배경

■ 화교 탄생의 배경은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으로 나누어짐.

- 첫째, 중국의 내란이나 왕조 교체기에 대거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임.
 - 효시는 진시황인데 다민족적 중앙집권제 통일국가 진나라(B.C.221-206)를 건설하였지만, 분서갱유(焚書坑儒)로 대표되는 폭정 때문에 백성들이 해외로 이주함. 또한 흉노족과 분쟁 후, 들어선 서진(晉 265-316) 시기에도 많은 화교가 생성됨.
 - 1279년 송나라가 이민족인 원나라(몽고족)에 의해 멸망되자 많은 송의 유민들이 동남아로 피난하였고, 이것이 첫 번째 대규모 중국인 이주로 간주됨.
 - 만주족의 청나라가 들어서자 명나라 유민들 역시 해외로 향함. 태평천국(1851~1864)과 중화민국 성립 후(1912년) 내전시기에도 이민이 발생함.
- 둘째, 적은 농경지에 비해 많은 인구가 생활고에 직면할 때도 해외 이주가 일어났고, 토지점병, 가혹한 세금, 인구과잉도 원인이었음.
 - 왕조의 멸망으로 1661~1812년에 푸젠성 인구가 5배 증가했는데 경작지는 32% 증가에 그쳤고, 광둥성의 인구는 20배나 증가했으나 경작지는 27% 증가에 그쳐 많은 백성이 타이완이나 동남아로 이주함.
- 셋째, 이주 대상국의 이민정책 변화 같은 외부 요인도 화교 형성 배경임.
 - 미국은 서부 개발을 위한 대륙횡단철도를 부설하는데 링컨 대통령 노예해방(1863년)으로 야기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량의 인력을 중국에서 조달함.
 - 이 시기 중국인 저임 노동자인 화공(華工)을 쿨리(Coolie)로 불렀으며, 이들이 1세대 미국 화교임.
 - 18~19세기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그들의 식민지 경영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화공으로 조달하고 이들을 호주, 뉴질랜드, 페루, 남아공, 말레이시아, 하와이, 피지, 모리셔스, 서인도 제도, 홍콩, 싱가포르 등지로 송출함.
 -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건이 유혈 사태로 끝나자 1997년 7월에 중국으로 반환된 많은 홍콩인이 동요하였고, 마침 호주, 캐나다 등 국가는 투자이민 정책을 통해 홍콩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였음.

- 1997년까지 60만 명의 홍콩인이 해외로 이민을 나섰고, 이는 홍콩 인구 8.4%에 달함.

■ **명대 14세기에는 정화의 대원정이 17세기에는 정성공의 대만 진출이 화교 생성 배경임.**

- 명나라 정화(鄭和)의 7차례에 걸친 대항해(1405~1433년)로 동남아 지역에 대규모 화교가 발생함.
 - 정화(1371~1433년)는 명나라 영락제 때 시작된 남해(南海) 원정의 총지휘관임. 조카 혜제가 해상에 숨어들었다고 의심한 영락제의 명을 받아 7회에 걸쳐 대선단을 지휘하여 동남아에서 서남아를 거쳐 아프리카 케냐 스와힐리에 이르는 30여 국에 원정함.
 - 당시 10만 명 이상 추산되는 이주자들은 동남아 각지에서 생존하기 위해 집단 거주함으로써 민족적 특성을 가진 화교 사회를 형성함. 이들은 중국산 비단과 도자기와 동남아 보석, 광물 등과 교환하여 무역상 실리를 획득함.
- 16세기 명나라는 광둥, 영파, 천주(이후 복주로 옮김)에 외국 무역 및 관세징수 사무를 감독하던 관청인 시박사(市舶司)를 설치하고, 관영 조공무역만을 허용하는 해금정책(海禁政策)을 취함.
 - 이후 민간인들은 밀무역을 위해 해외 진출하여 동남아 화교 인구도 점차 늘어남(이즈미다 히데오 2014, 9-10).
- 1664년 청조가 명을 멸한 후 많은 유민이 대만으로 건너가 정성공(鄭成功)과 함께 반청 투쟁에 참여하였고, 실패 후 많은 사람이 다시 동남아로 이주함.
 - 정성공은 1624년 해상무역을 하던 아버지와 어머니(일본인) 사이에서 출생(일본)함. 명나라가 멸망하자 장군에 임명되어 17.5만 명의 병사와 대선단을 이끌고 난징을 공략(1658~1659)하였으나 실패함. 그는 타이완으로 철수하여 당시 식민지배자였던 네덜란드 세력을 축출하였으나 이후 청나라에 복속됨.

[표 2] 13~20세기 화교의 이주 역사 시기와 배경

시기	이주 국가	이주 배경 및 여건
1292년	인도네시아	• 원나라, 자바에 원정하면서 다수 병사 잔류
13~14세기, 15세기	태국, 말레이시아, 동남아 각국	• 원나라에 의해 송나라 멸망 후 많은 유민이 해외 이주 • 명나라 정화의 원정(1405~1433)
17~18세기	캄보디아, 동남아 각국	• 명나라 이주민 중 일부가 베트남 군과 함께 남쪽 진출 • 정성공의 대만 진출 이후 동남아로 화교 유출
18세기	태국	• 화교 출신 딱신의 태국 톤부리 왕조(1769~1782년) 설립 후 광동성 지역에서 대규모 이민 수용
19세기	말레이시아, 서인도,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 노동자로서 영국 식민지에 이주 • 흑인 노동력을 대체하는 단순 노무자로 이주(쿨리, 화공)
19~20세기	인도네시아	• 네덜란드의 식민지 경영을 위해 중국에서 노동력 수입
1979년 이후	세계 각국	• 중국 내 개방정책과 각국의 이민정책 변화로 세계 각지에서 화교 인구 증가

자료: 조정원(2009, 126) 및 저자 보완.

■ 중국이 1979년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하면서 등장한 것이 신화교임. 이들은 생존을 위해 고국을 떠난 이전 화교들과 생성 배경이 다름.

- 신화교(新華僑)는 기존 화교가 명·청대 주로 생성된 것을 고려하여, 봉건시대 이후 등장한 화교를 ‘신화교’로 구분지어 정립한 개념임.
 - 신화교에 대한 기준은 중국의 마지막 봉건왕조인 청대가 끝나고 신중국인 성립된 1950년 이후 화교로 보는 시각과 신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이민을 허용한 개혁개방 시기 즉 1979년 이후로 보는 두 가지 기준이 병존함(丘进 2011, 58-59)
- 기존 화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도피하거나, 전란을 피하거나, 정치적 혼란기에서 탈출하는 등 생존 자체를 위해서 화교의 길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음. 반면 신 화교들은 중국 내에서 기술이나 자금을 지니고 이민에 나섰음.
 - 이들은 경제, 사회, 정치적 목적으로 화교가 된 것이기 때문에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현지화를 통해 이민 목적을 달성하려 함.
-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으로 많은 중국인이 결혼, 유학 등을 이유로 해외 이주를 시작하였고, 이 시기 다양한 국가와 지역으로 화교 진출이 늘어남.

- 1978년부터 2009년 말까지 국비유학생, 공적파견 유학생, 자비유학생을 모두 합쳐 162.08만 명이 해외로 나갔으며, 이중 귀국 인원은 49.74만 명에 불과함. 이 중 82.29만 명은 석박사, 박사후, 연구원 등 자격으로 해외 체류하고 있으며, 약 30만 명은 신화교로써 현지 국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구이스쑨(桂世勛)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인구 변동과 이민자 추이를 토대로 추산한 중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 발생한 신화교는 632.14만 명임 (丘进 2011, 61-62).
- 2006~2007년간 각 지역 화교 중 신화교 비중은 아프리카가 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시아 지역이 11.3%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즉 신화교는 미주(전체 화교 중 비중 55.6%) 유럽(79%) 대양주(63%) 같은 선진국이나 아프리카 같은 신흥시장으로 적극 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 대륙별 신화교 인구수(2006~2007년)

지역	신화교 인구수(만 명)	해당 지역 전체 화교 인구 중 비중(%)
아시아	400	11.27
미주	350	55.56
유럽	170	79.07
대양주	60	63.16
아프리카	50	90.91
합계	1,030	22.67*

주: 비중은 해당 지역별 화교 수를 100%로 보았을 때, 그중 신화교 비중임.

단 *합계 비중은 2007년 말 세계 화교 총수 중 신화교 비중임.

자료: 王望波·庄国土(2010, 7)

2. 화교 규모

1) 권역별 화교 추이

■ 학자별로 전세계 화교 규모는 4천만 명에서 8,700만 명에 달함

- 전세계 화교 인구에 대한 가장 빠른 문헌자료를 보면, 신해혁명이 일어난 해인 1911년 해외 화교·화인 총수는 600만 명 좌우로 집계됨(朱国宏 1994, 255).
- 논문 형태로 조사된 Dudley L. Poston 외(1994) 등에 따르면 1948년 세계 화교 인구는 872만 명을 기록했고, 이 중 96%가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음.
 - 1952년에 화교 총인구수는 1,253만 명을, 1980년에는 2,697만 명으로 증가함. 시간이 흐를수록 티 지역 거주 비중이 확대되어, 1980년 아시아 지역 화교 거주 비중은 91.8%였으나, 2006~ 2007년간에는 78.1%로 줄어듬(王望波·庄国土 2010, 7).
 - 2005년 중국시장학회 부비서장 장핑에 따르면 화교·화인 총수는 8,700만 명으로 168개 국가(지역)에 걸쳐 있고, 같은 해 영국 LSE 아시아연구센터는 화교 인구를 4천만 명으로 추산함(丘进 2011, 29-30).
- 중국 정부가 정확한 화교·화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국무원 교무판공실 주관으로 샤먼대학 남양연구소 화교전문가인 장귀투(庄国土)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결과, 2010년 6월 말 화교 인구는 4,500만 명임.
 - 개혁개방 이래 30년간 중국에서 해외로 나간 이민자 수는 450만 명 이상임. 1970년대~1999년간 중국(대륙), 대만, 홍콩에서 선진국으로 나간 이민자 수는 200만 명 이상이며, 불법 이민자들 규모는 50~70만 명 수준임.

■ 육로 및 해로 이동이 가능했던 동남아 지역에 여전히 화교의 70%가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프리카 화교 인구가 증가세를 보임.

- 1948년 아시아 지역에 96.1%나 거주했던 화교 비중은 2022년에 이르러 69.6% 수준으로 축소됨.

- 반면 2007년에 55만 명에 불과했던 아프리카 지역 화교 수는 2022년에는 118명으로 늘어나 전체 화교 수의 2.4% 수준을 점유하고 있음.
- 이는 2014년부터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많은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에 기인함(중앙일보 2018/2/6).

[표 4] 역대 권역별 화교 인구 및 비중 변화 추이 (단위: 만 명, %)

연도	화교 인구	아시아	미주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
1948	872.12	96.1%	2.4%	0.6%	0.7%	0.2%
1960	1,538.52	96.7%	2.6%	0.1%	0.3%	0.3%
1970	1,929.38	95.1%	3.7%	0.6%	0.4%	0.3%
1980	2,697.24	91.8%	4.9%	2.3%	0.7%	0.3%
1990	3,676.58	87.8%	8.8%	2.1%	1.0%	0.3%
2000	3,975.83	82.9%	10.9%	3.7%	2.0%	0.6%
2006~2007	4,543	78.1%	13.9%	4.7%	2.1%	1.2%
2011	4,031	74.5%	18.6%	3.9%	2.4%	0.6%
2015	4,330	72.3%	19.3%	4.5%	2.7%	1.2%
2019	4,921	70.0%	19.7%	4.7%	3.4%	2.3%
2020	4,933	69.7%	19.6%	4.9%	3.5%	2.3%
2022	4,973	69.6%	19.6%	4.8%	3.6%	2.4%

주: 중국대륙과 대만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화교 수임. 미주는 북미와 중남미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김동하(2021, 17), 中華民國僑務委員會(2023), 「僑務統計年報2022」. 참고하여 저자 보완.

2) 국가별 화교 규모

■ 인도네시아에 전체 화교 중 가장 많은 19.6%가 거주함.

- 대만교무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전세계 화교 인구수는 4,136만 명으로 이중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화교 인구는 3,072만 명으로 전체 화교 수의 74.3%를 차지함(中華民國僑務委員會 2013, 10).

- 아시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 화교가 812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이 태국(751만 명), 말레이시아(678만 명), 싱가포르(283만 명) 순임.
 - 대만교무위원회는 기구가 성립된 1926년부터 화교 규모(인구 및 기타 분류)에 대한 통계 작업을 해왔음. 그러나 수치 표집의 어려움으로 2013년 이후 국가별 화교 인구 현황을 발표하지 않음(권역별 인구만 발표).
- 미주(북미, 중남미) 지역에 사는 화교는 769만 명이며 이는 전체 화교 인구 중 18.6%에 달함. 이중 미국에 가장 많은 424만 명의 화교가 살고 있음
 - 미국 내 화교 거주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캘리포니아주, 뉴욕지구이다. 캐나다 거주 화교 수는 156만 명 수준임.
 -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청대 말기 화공을 중심으로 대규모 이민이 이루어졌던 페루가 99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이외에도 브라질, 파나마, 아르헨티나 등지에 많음.
- 유럽 거주 화교는 161만 명으로 전체 화교 수의 3.9%에 불과함. 이중 프랑스에 46만 명이 살고 있어 가장 많으며, 영국(42만 명), 이탈리아(20만 명) 순임.
- 최근 화교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은 아프리카이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 12만 명이 살고 있어 가장 많으며,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등에 3만여 명이 거주함.

■ 국가 전체 인구 중 화교 점유비가 가장 높은 곳은 말레이시아로 22.8%에 달함(싱가포르 제외).

- 초대총리 리관유(1923~2015년)가 성립한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때부터 중국계 인구 비중이 74.2%로 지금까지 변함이 없음.
- 말레이시아 화교 유입의 주된 배경은 1840년대 영국 식민지 개발을 위해 화공(쿨리)이 유입된 것임.
 - 1921년 화교 인구는 85만 명이었으나 1931년에는 128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같은 해 말레이시아 총인구 중 화교 비중은 30%에 달했음.
- 2002년 기준 한국 내 구화교 인구는 21,782명에 불과했으나, 한중 수교(1992년) 이후 유입된 화교 전체 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65.6만 명에 달함.

- 1세대 구화교는 1882년 청나라-조선 시기부터 유입되었으며, 한국전쟁 후 이들의 후손은 중화민국(현 대만) 국적을 선택해야 했음(1세대 고향의 90%는 산둥성).
-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중 중국인은 656,142명임.

[표 5] 전세계 국가별, 권역별 화교 현황(2021년)

(단위: 만 명, %)

지역·국가별	화교 수	비중	지역·국가별	화교 수	비중
아 시 아	3,072	74.3	미 주	769	18.6
인도네시아	812	19.6	미국	424	10.3
태국	751	18.2	캐나다	156	3.8
말레이시아	678	16.4	페루	99	2.4
싱가포르	283	6.8	브라질	28	0.7
필리핀	141	3.4	파나마	14	0.3
미얀마	106	2.6	아르헨티나	10	0.2
베트남	100	2.4	베네수엘라	8	0.2
일본	68	1.6	멕시코	6	0.14
러시아	47	1.1	코스타리카	4	0.1
한국	18	0.4	자메이카	3	0.1
라오스	15	0.4	에콰도르	3	0.1
캄보디아	12	0.3	도미니카	2	0.05
인도	12	0.3	칠레	2	0.05
기타	16	0.7	기타	10	0.23
대 양 주	107	2.6	유 럽	161	3.9
호주	87	2.1	프랑스	46	1.1
뉴질랜드	15	0.4	영국	42	1.0
폴리네시아	2	0.05	이탈리아	20	0.5
파푸아뉴기니	2	0.05	스페인	14	0.3
기타	1	0.02	네덜란드	11	0.3
아 프 리 카	27	0.7	독일	9	0.2
남아프리카공화국	12	0.3	스웨덴	3	0.1
모리셔스	3	0.1	기타	15	0.35
레위니옹섬	3	0.1	전체 화교 합계	4,136	100%
나이지리아	3	0.1			
기타	6	0.2			

주: 2012년 이후 국가별 통계는 미공개. 2022년 전세계 화교는 4,973만 명으로 10년간(2012~2022년) 연평균 1.9% 증가함. 2013년 이후 화교 총수 및 권역별 비중은 본고 [표 4]를 참고할 것.

자료: 中華民國僑務委員會(2013, 11)

3. 화교 정책의 변화

1) 청대 화교 정책

■ 1861년, 총리아문의 등장으로 화교 정책이 시작됨.

- 그간 자발적 이동과 정치적 배경으로 해외 진출이 있었으나, 청대에 이르러 이민을 명백히 금지함. 이는 해외로 이주한 명나라 신하들의 무장반란 통제 목적이었음.
 - 그런데도 청말 혼란기와 특히 아편전쟁(1840~1842) 후 경제가 쇠락한 광둥성, 푸젠성 지역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화공(쿨리) 신분으로 해외로 이주하게 됨.
 - 이러한 배경으로 중국 이민자들은 청나라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현지 국가에서는 민족적 차별과 심한 착취에 시달려야 했음.
- 1861년 청나라 정부는 외국 관련 업무를 관장 할 기관으로 외무부 전신에 해당하는 총리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을 설치함.
 - 청말 외사 업무는 예부(禮部), 이번원(理藩院)에서 조공국(朝貢國)과 같이 취급됐는데, 1860년 베이징조약 체결로 대외업무 처리부서가 필요해짐. 주중 외국공사관 설치 교섭을 맡았던 공친왕을 중심으로 총리아문을 개설함. 초기 군기대신이 겸임하여 군기처 하위 부서인 듯 했으나, 1901년에 외무부가 개설되고 총리아문은 폐지됨.
- 1868년 총리아문 주관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벌링게임 조약(Burlingame Treaty)이 체결되었고, 조약 제5항에 합법적 이민을 명시함.
 - 앤슨 벌링게임은 1861년 링컨 대통령이 지명한 청나라에 대한 미국 장관이었음. 조약 5항은 '미국과 중국 황제는 국적을 바꿀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호기심, 무역, 영주를 목적으로 하는 자국민의 자유로운 이민 그리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물건의 자유로운 이동을 성실히 인정한다.'²⁾

2) 청나라 정부는 앤슨 벌링게임(Anson Burlingame) 미국 장관에게 양국간 외교 임무를 요청했다. 그 결과, 미국과 청나라가 1858년에 체결한 '톈진조약'이 개정되어, 벌링게임 조약(1868)이 체결되었다. 이후, 양국은 국민들의 해외 이주를 허용했으며, 다른 조항은 '미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중국인은 여행이나 거주와 같은 특권을 누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권과 면책조항은 차별, 착취, 폭력으로부터 미국 내 중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출처: <http://immigrants.harpreweek.com>(검색일: 2014.7.1))

- 총리아문은 1873년 페루와 1874년 쿠바에서 중국인 노동자(화공)들의 부당한 대우를 조사할 위원회를 설치했음.
- 두 위원회 보고를 기초로 중국과 페루, 중국과 스페인 간의 양자 조약을 체결할 기반을 마련함. 이러한 조약들과 보고를 바탕으로 청나라의 화교 정책은 모양을 갖추어 감.

■ 중화회관은 청대 화교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중화회관(中華會館)의 유래는 중국 내 각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배타적 상인 그룹인 상방(商幫)들이 조직한 ‘회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
- 명나라 시절, 고향을 떠난 상인들은 지역별 방언의 차이로 말이 통하지 않는 외지에서 동향인(同鄉人)이 유일한 의지 대상이자 비즈니스 협력자였음.
- 명대 상방의 등장으로 상업종사자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각해지자, 가정·융경연간(1522~1572년)에 각 지역에서 동향인을 위한 거점으로 회관(會館)을 설치하기 시작함. 제사를 거행하면서 상업 목적을 피하는 것 이외에도, 고향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두는 등 장사와 생활의 편의를 도모함.
- 중화회관은 해외에 진출한 화교들이 세운 ‘회관’임. 새로 온 이민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병든 자를 돌보고 사망한 자의 유골은 고향으로 운송하였으며, 구성원간 분쟁을 중재하기도 함. 즉 화교들의 보호막이 됨은 물론, 상조역할도 수행함.
- 화교들이 세운 가장 오랜 중화회관은 윈난성 출신 화교들이 미얀마의 옛 수도였던 만달레이(Mandalay)에 있음. 이곳은 명나라 성화연간(1465~1487년)에 설립되었으며, 윈난성과 미얀마(옛 버마)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육로 이주가 가능했음.
- 1741년 미얀마에 푸젠, 광둥, 하이난, 차오저우, 객가인 출신 화교들이 세운 강절회관(江浙)이 등장했는데, 화교 인구가 늘어나자 지역별(광둥·복건)로 분화함.
- 중화회관은 각 국가에 있는 화교 1세대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조직화하기 위하여 만든 상공회의소 혹은 교민협의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
- 청말 변변한 외사 조직을 갖추지 못한 중국 정부는 해외 화교들의 업무를 ‘중화회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중화회관은 거주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 또한 중국의 외교공관들과 중화회관은 화교 업무의 감독과 정보 집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함.

- 1851년 광둥성 남해, 번우 및 순덕 출신 이주민들이 미국 내 첫 번째 중화회관인 삼읍(三邑)회관을 설립함. 이들은 입회비, 법률소송기금을 받고 자문위원을 두어 화교 권익을 보호함. 1852년에는 광둥 중산지역 출신들이 양화(陽和)회관을 설립하였고, 객가인들은 인화(人和)회관을 별도로 설립함(김남현 1997, 38-41).
- 청 정부는 1909년 중국 최초 국적법인 대청국적조례(大清國籍條例)를 공포함. 동 조례(총24조)를 통해 이민을 규정하고, 화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함.
- 청나라의 화교정책은 영사관 설립을 통한 화교 권익보호, 교육사업을 통한 화교의 중국문화 이해 확대, 화교의 국내 산업투자 유치, 혈통주의 원칙 국적법 제정 등임.
- 자본 유치, 선진 생산기술과 경영관리 방법 도입 등으로 민족 상공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고, 이후 정권의 화교 정책 수립에 기초를 제공함(毛起雄林曉東 1993, 45-53).

[표 6] 청대 영사관 설립 현황과 시기

지역(국가)	개관 일시	지역(국가)	개관 일시
싱가포르 (*영국)	1877.10	이탈리아 나폴리	1904
일본 요코하마, 쓰키지	1878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1904.11
일본 고베, 오사카	1878	모잠비크 (*포르투갈)	1905
일본 나가사키	1878	미국 포틀랜드(시애틀)	1906.9
하와이 호놀룰루(*미국)	1879.3	미국 시애틀	1908
쿠바 (*스페인)	1879.8	노르웨이	1908
쿠바 마탄사스	1879.8	프랑스 파리(波鐸)	1908.1
미국 샌프란시스코	1880.1	호주(*영국)	1908.5
미국 뉴욕	1883.3	뉴질랜드 (*영국)	1908.5
페루 리마	1884.12	캐나다	1909.1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 니카다	1886.2	캐나다 오타와	1909.1
한국(조선) 부산	1884	호주 시드니(*영국)	1909.7
말레이시아 페낭섬 (*영국)	1893.3	호주 퍼스(*영국)	1909.7
한국(조선) 용산, 원산	1896.12	호주 브리즈번	1909.7
한국(조선) 인천, 목포, 군산	1896	사모아(*독일)	1909.9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1897.4	오스트리아	1909.9
필리핀 마닐라 (*미국)	1898.9	파나마	1910.1
한국(조선) 남포, 평양	1899.10	프랑스 마르세이유	1910.8
버마 양곤 (*영국)	1901	이탈리아 제노아	1911.1
한국(조선) 원산	1902.11	한국(조선) 신의주	1911.8
미국 보스턴	190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 (*네덜란드)	1911.9
멕시코	1904.7		

주: * 표시는 당시 해당 국가의 식민지임을 나타냄.
자료: 광둥화교박물관 공개사료.(필자 방문일자: 2017.7.4).

2) 개혁개방 시기 화교 정책

■ 문화대혁명 기간 전 중국은 화교 네트워크를 이용해 경제발전을 도모함

- 중국은 1954년에 공포된 헌법 제98조에서 ‘중국 정부는 국외 화교의 정당한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천명하고 화교 업무를 주관하는 전문기관으로 국무원 산하 직속으로 ‘화교사무위원회’를 설치함.
- 당시 중국 화교 정책의 목적은 화교들이 본토에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보내는 부양 자금 획득을 위한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으며, 아울러 화교 네트워크를 이용해 중국산 제품의 대아시아 판로 확대를 꾀하고자 함.
- 문화대혁명(1966~1976년) 기간 중국 정부는 해외 화교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표출함. 부르주아를 배격하는 노선에 따라 국내에서 유복한 생활을 하던 화교 가족(僑眷)이나 귀국 화교(歸僑)는 홍위병의 공격 대상이 됨.
 - 화교는 ‘해외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비판함. 화교투자공사 투자는 동결되어 해외 화교로부터의 송금은 급감함. 문화대혁명 10년 동안 중국의 화교 업무는 거의 정지됨.

■ 개혁개방 정책 실시 후 첫 번째 투자유치 대상은 화교였음

-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화교정책의 방점은 경제발전에 화교 자본을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데 있었음. 또한 화교들의 기술과 인재를 흡수하기 위해 노력함.
 - 홍콩·마카오·대만 등 화교들이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는 1979년에 이들과 인접한 광둥성 선전·산티우·주하이 그리고 푸젠성 샤먼에 설치됨.
 - 화교 기업들의 재투자과 사업 확대를 위하여 재산권 행사, 과실 송금 등 업무에 있어서 다른 외국기업에 우선하는 특혜를 부여하였으며, 중국 내 교육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화교들의 애국주의가 자선사업을 통해 실현되도록 유도함.
- 이러한 기반으로 정립된 이 시기 화교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화교들의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권유함. 즉 화교의 화인(華人)화를 촉진함. 1980년에 제정한 ‘국적법’에서도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음. 이후 1980년대에 해외 화교들은 현지 국적 취득에 대거 나서게 됨.

- 둘째, 화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며 화교 거주국 정부에 대하여 화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을 요구함. 셋째, 화교가 거주국과 거주국의 법률을 존중하고 거주국 국민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장기간에 걸쳐 공존할 수 있도록 교육함.
- 넷째, 화교 동포의 애국주의 정신을 수호하고 발양하며 가족보다는 나라를 사랑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교 동포 전체 단결을 도모함. 다섯째, 중국 국내에 있는 귀국화교, 화교 연고자, 화교 가족에 대해 우대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견지함.

■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여 화교들에게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현재 중국 국내에는 귀국 화교(귀교)가 90만 명, 화교화인들의 중국 내 가족(교권)들이 약 3천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함.
- 중국 정부는 이들을 위해서 관련 법률·법규를 제정공표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1990년에 제정된 「귀교교권 권익보호법」임.
 - 동법은 귀국 화교와 화교 가족들에 대한 차별금지과, 재산, 직장, 교육, 주택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함 (2000, 2009년 수정). 또한 인민대표대회 등에 정치 참여를 보장함.
 - 동법의 실시세칙인 「귀교교권권익보호법 실시방법(归侨侨眷权益保护法实施办法)」을 1993년에 제정하였으며, 2004년에 수정공포함.
- 화교를 위한 제도적 기구를 당과 의회, 국무원에 두고 우대 정책 기반을 제공함.
 -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화교위원회는 화교의 이익과 권익 신장에 관한 입법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구임.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총 2,987명의 대표 수에서 귀국화교 대표는 35명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음.
 - 2004년 10월에 개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의 제6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귀국화교의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명문화됨.³⁾
 - 대부분 화교 대표는 해외 거주 중인 화교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화교가 많은 중국 내 도시에서 선발함. 따라서 해외 화교의 이익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화교가 거주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나영주 2015, 54-78).

3) 제6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귀국화교가 비교적 많은 지구의 지방인민대표대회에는 적당한 수의 귀국화교대표가 있어야 한다.

■ 현재 중국 내 화교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은 교무(화교사무) 판공실임.

- 신중국 성립이후 화교 사무를 총괄하던 ‘화교사무위원회’는 1978년에 국무원 교무판공실(国务院侨务办公室)로 명칭을 변경함.
 - 주요 업무로는 국무원 지도하의 국내외 화교 업무의 통일적 지도, 국내외 화교업무의 상황 조사연구, 당과 정부의 화교업무 기본방침·정책·법규 제정 및 집행 협조,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권익보호, 귀국 거주할 화교의 재배치 등임.
 - 교무판공실은 언론사로 중국신문사(중국신문망)이 있으며, 전세계 화교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라 할 수 있는 중국교망(中国侨网)을 직속기구로 둬.
 - 이외에도 언어 학습 기능을 수행했던 북경화문학원(北京华文学院)과 광둥성 광저우에 있는 종합대학인 지난대학(暨南大学), 복건성에 있는 화교대학(华侨大学)을 보유함.
- 교무판공실은 국무원 내 조직에 있는 각 부처(외교부, 교육부 등)와는 달리, 국무원 총리를 보좌하여 전문업무 및 특별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기관 성격을 가짐.
 - 교무판공실에서 수행하는 화교 관련 업무는 독자적이라기보다 각 부처 화교관련 업무 혹은 당중앙위원회 산하기구인 중앙통일선전공작부 지침을 수행하는 집행기관 성격이 큼. 교무판공실은 화교업무의 방침, 정책, 법규를 제정하는 최고 기관이고, 각급 지방정부에도 교무판공실이 있음(이진영 2018, 211).
 - 후진타오 집정시기 화교의 정체성 및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교무판공실 산하에 중국화문교육기금회가 2004년 설립됨.

3) 중국몽과 시진핑 시대 화교 정책

■ 중국몽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부상한 화교 위상

- 2012년 11월 집권한 시진핑은 통치이념으로 ‘중화민족의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움.
 - 2012년 공산당 총서기 선출 직후,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의 실현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진핑 집정시기 대표적인 통치 이념이 됨. 중국몽에는 국가부강, 민족진흥, 인민행복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

- 시 주석의 중국몽은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달성으로 수치화됨.
- 2015년 12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시진핑 총서기 화교 업무 논술 연구회’를 통해 화교를 중국몽 달성을 위한 소프트 파워로 활용할 것이 제시됨.
 - 동 연구회에는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 등 정책 싱크탱크 담당자는 물론 국무원 교무판공실 책임자들이 참석함.
- 연구 주제는 중국몽을 위한 화교 역할이었으며, 일대일로(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연선 국가들에 거주하는 화교와 협력강화, 화교출신 창신창업 인재 유치 등이었음.
 - ‘화교 동포들이 현지 주류 사회에 융합하도록 적극 지원’과 ‘세계 정세의 변화에 발맞춰 화교·화인의 작용과 지위를 새로 설정’ 등도 주요 액션 플랜으로 제시됨.
- 이는 중국정부가 화교란 자원을 주로 하드 파워(경제력)로만 이용했었다면, 이후엔 중국몽 달성을 위해 소프트 파워로도 활용해 화교 주재 국가 내에서 친중국 영향력을 조성하는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 2014년 이후 시 주석이 해외 방문 시 개최되는 화교환영회를 보면 주로 현지 국가에서 자선 및 사회사업 등으로 인정받는 인사들이 헤드 테이블에 초청되고 있음(중앙일보 2018/2/6).
- 시 주석은 2014년 제7회 세계화교화인사단연합회대회 면담에서 “중국몽은 국가몽, 민족몽이며 모든 중화자녀의 몽(夢)이다. 화교동포는 애국심과 거대한 경제력, 풍부한 지적 자원, 넓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서 중국몽 실현의 중요한 역량”이라며 중국몽 달성을 위한 화교의 공헌을 강조하고 있음(中国侨网 2019/9/27).
- 시진핑 집권 초기인 2012년 ‘국가교무공작발전강요(2011-2015)’를 통해 범주화된 화교·화인의 역할체계를 보면 화교·화인의 역할은 ①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파, ② 모국 발전에 기여, ③ 중국과 세계경제를 잇는 역할, ④ 중국 전통문화를 새롭게 하고, ⑤ 화교·화인의 정체성을 결합시키는 자석의 역할로 규정됨.
 - 「国家侨务工作发展纲要(2011 - 2015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국가 중요 국정방침인 ‘강요’ 형태로 제시된 화교사무 지침임.

- 이 시기 교무판공실 업무 중점은 ① 화교·화인은 해외에서 중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존재이니 국가이익 옹호에 역할을 할 것, ② 중국경제 형성의 옹호·참여·공헌자이니 중국의 해외이익 확대에 기여할 것, ③ 중화문명의 우호사절이니 해외에 중화문화를 전파할 것, ④ 세계적인 역량을 충분히 가졌으니 공공외교 측면에서 선전하고 중국과 세계를 잇는 구조를 조성할 것 등임(范如松 2012, 247-277).
- 상기 문건을 종합하면 시 주석의 화교 정책은 ‘국가전략의 발전과 함께하는 화교사무 행정’으로 축약됨. 즉 글로벌 차원에서 화교·화인들이 중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를 중국과 연결하고 새롭게 구조화하게 하는 첨병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시진핑 시대 화교 정책의 방점은 문화 중심의 소프트파워 확산에 있음.

- 1990년대 말부터 업무영역에 포함되기 시작한 문화교류와 화문교육사업 추진이 시진핑 집정시기에 교무판공실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부상함.
 - 교무판공실 내 문화국(文化司)은 여러 외곽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화문교육사업을 위한 중국화문교육기금회와 문화교류를 위한 중국해외교류협회가 포함됨.
- 시진핑 시기 화교·화인정책 특징은 동포로서 중화민족 정체성 회복은 물론 중국과 세계에서 역할을 하기 위한 민족 교육을 실시하는 구체적 프로그램 운영에 있음.
 - 화문교육기금회 설립(2004년) 목적은 중화문화의 확산, 화문교육사업의 발전, 중국과 외국간의 문화교류의 촉진임. 주요 사업으로 화문교사양성, 화예 청소년 중화문화 전승, 화문교사 모국연수, 화문교구재 개발, 전통명절 및 기념일 문화 장려 등이 있음.
- 중국몽 실현을 위한 문화외교정책 및 공공외교정책 전면에 화교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교무판공실은 산하 사회단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중국해외교류협회(1990년 창설),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1956년 창설) 및 중국유학인원연합회(구미동학회, 1913년 창설) 등 외곽단체를 통해 이러한 방침을 화교·화인들에게 실제 집행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이들 단체 연례모임에 방문하거나 교시를 내려 독려하여, 화교·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국무원은 2017년에도 ‘국가교무공작발전강요(2016-2020)’를 발표해 화교업무 지침을 제시했으며, 특히 문화교육, 신세대 고국방문 체험, 중국어교육, 홍콩·대만·마카오와 교류 등에 대해 중점을 둘 것을 천명함(新华社 2017/1/12).

[표 7] 시진핑 주석의 화교사무 관련 지시, 교시 현황

일시	대상, 장소	주요 코멘트	비고
2013.9.25	제12차 세계화상대회 축하사	소강사회 건설과 중화민족 부흥을 위하여 화상들에게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함. 개혁을 심화하고 정책 최적화와 서비스를 강화하여 합법적인 화상의 투자이익을 보호함.	쓰촨성 청두
2014.6.6	제7회 세계화교화인사 단연합대회 대표면담	중국몽은 국가·민족몽이며 중화자녀 개인의 몽임. 화교들의 애국심, 경제력, 인적자원,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 역량임. 해외 중화자녀들 단결로 중국몽을 실현할 수 있음.	베이징
2014.10.21	천자경 선생 탄생 140주년 기념식 축하서신	대표적인 복건출신 싱가포르 화교인 천자경(陈嘉庚)선생 탄생을 기념하여 애국 업적을 기림. 그를 본받아 중화민족 부흥의 꿈을 이루자라고 강조	푸젠성 샤먼
2015.9.23	미국화교 주최 환영회 축하	재미화교 모두에게 중화문화를 펼치는 외교관 역할을 당부, 미국인이 진정한 중국 모습을 이해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요청	미국 시애틀
2017.2	화교사무업무 중요지시	중화민족 부흥을 위해서는 해외 중화자녀와의 공동노력이 필요함. 화교, 귀국화교, 화교가족과 긴밀하게 단결하여 중화민족 부흥에 적극적 작용이 발휘되도록 할 것	-
2018.10.24	지난대학 방문시 교시	중국에는 5천만명의 해외 화교동포가 있으며 이들은 중국 발전의 공헌자임. 중국 개혁개방에는 이들의 공헌도 컸음.	광둥성 광저우
2019.5.28	제9회 세계화교화인사 단 연합대회 축하	화교는 중국이 세계 각국과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고 있음. 아울러 중국몽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량임.	베이징
2020.10.13	광둥성 순방 교시	새시대에도 화교라는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함. 이들의 선진 기술, 첨단산업이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여 중국몽을 달성해야함.	새시대 시진핑 집정시기
2020.10.13	광둥성 산터우시 화피박물관 참관	산터우 경제특구는 화교 덕분에 발전했음. 이후 화교를 통한 중외교류협작을 지속 확대할 것	화교 관련 문서박물관
2023.8.31	제11차 전국귀교교권대표대회 축하	중국몽 실현을 위한 화교의 역할 강조	베이징

자료: 중국 내 공개자료 종합(2024.4)

4. 평가

- 시진핑 집정시기 화교·화인 정책은 이전 후진타오 시대(2003~2012년)를 계승하면서도 구별되는 여러 특징이 나타남.
- 후진타오 시기 화교·화인 정책은 중국 종합국력의 한 주체로 화교·화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중화민족 후손으로서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공자학원 등을 통한 중국어 교육 시스템을 제도화하였음.
- 시진핑 시기 화교·화인 정책은 글로벌화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시 주석 통치 이념인 중국몽 완성에 화교·화인의 해외 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중점이 있음.
- 가장 눈에 띄는 시스템은 문화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확산 구조 구축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운영이 교무판공실 주관으로 진행됐음.
- 집권 1기(2012~2016년)에는 화교·화인의 애국심과 경제력, 풍부한 지적자원, 넓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중국몽 실현의 중요한 역량으로 범주화하고, 특히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에 집중함.
- 또한, ‘중화민족’의 외연 확대를 위해 화교·화인까지 포함하는 동포 개념을 제시하여, 중국몽 달성에 화교·화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분명히 명시함.
- 이러한 인식 기초하에 화교·화인 정책을 추진하는 운영 방식이 변화했고, 화교·화인을 대상으로 한 화문교육 및 교류사업 프로그램이 집권 2기(2017~2021년)에 대대적으로 실시됨.
- 2022년 10월 시진핑 집권 3기를 맞이하여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참고자료

- 김남현(1997), 초기 중국인 사회조직체 연구: 6大中華會館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6권.
- 김동하 외(2019), 『차이나 키워드 100』, 시사중국어사.
- 김동하(2021), 『중화경제권의 이해』,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김두진(1990), 중국의 대ASEAN 화교정책, 『아세아연구』 84호, p.278.
- 나영주(2015), 중국의 화교화인 정책: 변화와 전망, 『민족연구』 61권, pp.54-78.
- 이진영(2018), 시진핑 시기 중국 화교화인정책의 전개와 특징, 『아태연구』 제25권 제4호, p.211.
- 이즈미다 히데오(2014), 『해역아시아의 차이나타운 화인가』, 도서출판 선인.
- 조정남(1998), 중국인의 민족상황과 화교집단, 『민족연구』 1호, p.39.
- 조정원(2009), 중국의 화교 정책에 대한 연구, 『민족연구』 37권, p.126.
- Dudley L. Poston, Jr., Michael Xinxiang Mao and Mei-Yu Yu(1994), The Global Distribution of the Overseas Chinese Around 1990,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20, No.3, pp. 631-645.
- 国务院侨务办公室(2016), 涉侨政策法规, 『侨务工作研究』, 2016年 3期.
- 毛起雄 林晓东(1993), 『中国侨务政策概述』, 中国华侨出版社.
- 丘进(2011), 『华侨华人蓝皮书:华侨华人研究报告(2011)』,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王望波·庄国土(2010), 『2008年海外华侨华人概述』, 世界知识出版社.
- 朱国宏(1994), 『中国的海外移民-一项国际迁移的历史研究』, 复旦大学出版社.
- 中華民國僑務委員會(2013), 『僑務統計年報2012』.
- 中華民國僑務委員會(2023), 『僑務統計年報2022』.
- 国务院侨务办公室 (www.gqb.gov.cn)
- 中國僑網 (www.chinaqw.com)
- 미국화인공상업연합회 (www.usccda.org)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